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9호 [루게 제22991호] 주체99(2010)년 2월 8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지, 리제일동지, 전일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에 깃들여있는 비날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아버지장군님을 맞이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지원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일념을 안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편관부문 공장,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채의 생산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모든 기존생산공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신설사업을 진행하였을뿐아니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의 CNC화를 실현함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는 지금 16년만에 주체섬유인 질 좋은 비날론섬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화학제품들이 팡팡 생산되고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생활을 더욱 발전시키며 특히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인 비날론공장현대화공사의 성과적완공은 당과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پاس로 되며 백철불굴의 정신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보루를 철벽으로 다져가고 있는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초산비닐직장, 종합직장, 수직방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지원자들이 우리의 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나의 대화화기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낸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극복하고 당의 명령관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그저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으로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해주신 비날론공업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경이적인 성과는 당의 요구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일대 과

시로 되며 우리 인민이 지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사기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비날론을 격정에 넘쳐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날론천을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드디어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올해에 비날론공장이 새롭게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다는 대경사라고 하시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이 기쁨을 안아온 기업소로동계급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오직 혁명의 리익만을 생각하며 전심전력을 다한 전위투사들이었다고 하시면서 민전에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언제나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공장이므로 그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는것과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튼튼히 축성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가치수를 더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비날론 중간체로부터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방향족화합물생산공정을 완성하여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먹고

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비날론과 비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공장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

기업소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력사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기업소에 수많은 료전기재들을 선물로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비날론공장건설에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시어 따뜻이 고무격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비날론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시고 자기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끄시어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모도반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공동구호에서)

지난 1월 9일 김철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를 접한 후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당장 65톤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뜻깊은 10월을 행복의 웃음소리가 강산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의 10월로 빛내자는 김철로동계급의 불같은 호소에 화답

하여 새해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지금 선군혁명의 기둥이고 주력군인 인민군인들과 인민경제 모든 전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는 김철

의 호소따라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나가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판철할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명도 밑에 인민의 리상이 바야흐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승리의 포성이 누리를 진검할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강성대국건설에서 열렬의 애국투사, 창조적 영웅,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10월의 경축광장에 멋있게, 긍지높이 들어서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당보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정신과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라는 표제어에 지상연단을 조

직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보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에 적극 투고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원들의 애국정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입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금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본사편집국

## 대혁신, 대비약의 힘있는 원동력이 되게 누구나 연 단 으 로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놓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올해투쟁을 잘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2010년이 우리 당과 인민의 리상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일대 비약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보지상연단을 이를 위한 투쟁의 힘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에 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를 조직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명도 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나가고있습

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시대의 선구자, 시대의 전형을 본보기로 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천만근민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혁명적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왔다. 격동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구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참된 애국자, 창조적 영웅, 투쟁의 기수들이다. 철의 기둥이 되고 싶고 철의 의지가 있어야 진도 사랑도 생긴다. 철은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담보이며 강성대국건설승리의 포성을 울릴 기본대포이다.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나라의 철생산을 책임진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강한 민족자존의식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신대로 100% 우리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우리 기술로 철을 뽑는 우리 식의 선철생산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주체철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지난해 12월, 김철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해에는 김철로동계급이 전국의 선봉에 서라고, 나는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 크나

큰 믿음과 당부를 심장에 간직 한 김철로동계급은 올해를 김철의 뒤를 따라 4대선행부문의 모든 로동계급은 경공업과 농업, 축적중추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사변을 안아오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김철의 호소에 실선으로 화답하려는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 위대한 창조력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근민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지난해에 강선의 봉화가 강성대국건설에서 극적인 전환을 안아온것처럼 올해에는 김철의 불길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을 일으키리라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모두가 김철의 투쟁 본래로 살며 일한다면 올해에 반드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가 가지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지금 김철로동계급은 진정한 수령경사사용위도, 참다운 애국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데 열심이다 하면서 당장 65톤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촉박하고 철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철의 뒤를 따라 4대선행부문의 모든 로동계급은 경공업과 농업, 축적중추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사변을 안아오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김철의 호소에 실선으로 화답하려는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 위대한 창조력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근민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지난해에 강선의 봉화가 강성대국건설에서 극적인 전환을 안아온것처럼 올해에는 김철의 불길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을 일으키리라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모두가 김철의 투쟁 본래로 살며 일한다면 올해에 반드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가 가지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지금 김철로동계급은 진정한 수령경사사용위도, 참다운 애국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데 열심이다 하면서 당장 65톤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촉박하고 철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철의 뒤를 따라 4대선행부문의 모든 로동계급은 경공업과 농업, 축적중추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사변을 안아오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김철의 호소에 실선으로 화답하려는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 위대한 창조력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근민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지난해에 강선의 봉화가 강성대국건설에서 극적인 전환을 안아온것처럼 올해에는 김철의 불길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을 일으키리라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모두가 김철의 투쟁 본래로 살며 일한다면 올해에 반드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가 가지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지금 김철로동계급은 진정한 수령경사사용위도, 참다운 애국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데 열심이다 하면서 당장 65톤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촉박하고 철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철의 뒤를 따라 4대선행부문의 모든 로동계급은 경공업과 농업, 축적중추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사변을 안아오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김철의 호소에 실선으로 화답하려는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 위대한 창조력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근민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지난해에 강선의 봉화가 강성대국건설에서 극적인 전환을 안아온것처럼 올해에는 김철의 불길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을 일으키리라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모두가 김철의 투쟁 본래로 살며 일한다면 올해에 반드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지상연단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가 가지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지금 김철로동계급은 진정한 수령경사사용위도, 참다운 애국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데 열심이다 하면서 당장 65톤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의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7일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

강변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세계자주화위업과 조국천선의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장은 방문록에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더욱 그렇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중앙통신】

## 불멸의 꽃에 어린 뜨거운 마음

강병군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종업원들

평화 수확의 감추워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면서 리나미, 엄향복, 전용철동무를 비롯한 온실종업원들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새해 정초에

## 로병이 걷는 애국의 길

판정대구역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조국이 있고야 가정이 있고 온 가족이 행복이 있다. 누구나 자기 한가정을 위하여 조국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식들을 타이르는 로인의 눈물은 젖어떨었다. ... 조국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 생활의 이 철리를 체봉진로인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깊이 절감하였다. 그는 공화국난방부에서 태어났다. 해방전 체봉진로인은 배가 채우기 전부터 부모와 함께 남의 집 소작살이를 하였다. 고향인 평남지방의 땅은 비록 비옥해도 그들에게는 제 땅이 아니었다. 체봉진로인의 집은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이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어느날 저녁이었다. 체봉진로인의 집에는 세간나간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모여들어 조용하던 집안이 떠들썩하였다. 하면서도 아들, 딸, 며느리들은 영문을 알수 없이 서로 마주보면서 있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자식들 모두를 모이라고 했을까? 체봉진로인이 이유를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너희들의 성의를 내가 모르는바가 아니다. ...》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들이 아버지의 80살생일준비를 의논하는 사정을 두고 말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체봉진로인은 나직한 어조로

##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외교부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과의 친교모임

교관계 설정 60돐을 맞으며 두 나라 외교부관사이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친선의 해》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진데 대하여 감회깊이 축하하고 새해에도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이야기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외교부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과의 친교모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외교부에서 5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과의 친교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으며 조영양 부장조리를 비롯한 중국 외교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조중의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배운 지식을 현실과 결부하여 공고히 다져간다. -적령공업대학에서- 본사기자 김홍준 특음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 체봉진가정

찾았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는 자식들도 대를 이어 애국의 한길에 꽃피어 줄 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말이나 체봉진로인이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내고 집에 왔을 때에는 사랑과 믿음에 찬 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말대로 믿을 때면 떠나보낸 로인이었다. 둘째딸 체봉진로인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껏 위로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제일 기뻐하며 딸과 함께 물자를 마련하느라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자식들이 자기의 80살생일준비를 위해 의논하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체봉진로인은 생각이 많았다. 은덕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생활은 도리를 모르는 속된 살림이었다. 사람은 한생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값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갈수록수북 더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인이었다. (은 나라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자

본사기자 김호혁

# 인류의 념원을 꽃피우는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태양은 온 누리를 비친다. 태양의 빛발이 있어 이 세상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자란다.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태양을 따르나. 이러한 위치는 인간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인중의 위인인 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고 있다.

《김정일동지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현명한 령도력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수많은 나라의 출판보도계가 그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지구의 곳곳에서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것은 오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참으로 그분은 높은 아치의 나

라에 솟아오르신 위대한 태양이다. 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그 어떤 검은구름이 몰아쳐와도 우리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다.》

이것은 로씨야의 갈리나 슈스토로바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한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호모의 마음을 이처럼 절절히 표현하게 되었는가.

언제인가 그는 친구들로부터 이 세상 온 천지를 다 찾아보아도 조선처럼 독특한 사회는 없을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직접 조선의 현실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커다란 동경심을 품고 우리 나라를 찾은 그는 체류기간 여러곳을 참관하고 조선의 현실은 자기가 듣고 생각한것보다 더 희한하고 위대하다고 못내 경탄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비범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웅장 화려한 평양시를 돌아보고 그는 다른 나라들에서 옛 건물 하나를 개건확장하는데 10일이 걸렸었는데 조선에서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살림집 지주기를 건설한것은 그야말로 기적을 일삼았다고 하면서 그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 깊이 느끼게 된다고 자기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우

의 감동을 피력하였다.

평양산림 참관을 마치고 그는 이곳이야말로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행복의 요람이라고 하면서 태어나는 어린이들과 산모들을 위해 세상에 으뜸가는 산원을 일떠세워준 나라의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밖에 없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탁아소어린이들의 재롱스러운 공연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감잡지 못하였다. 커다란 감동속에 공연을 보고난 그는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버려줄을 모으며 행복과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세상 가장 으뜸가는 위인인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품도를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분이 바로 또 한분의 으뜸가는 위인인 김정일장군님 이시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한 확신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나아갈 때 인류의 자주위업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굳어졌다.

하기에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맑은 아침의 나라에 솟아오르신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우

리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던것이다. 그만이다.

로씨야의 갈리나 슈스토로바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완전한 실시, 평양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도처에 세워진 대기념비적창조물들...

그에게는 우리 나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절할 때마다 불쭉불쭉 떠오른다는 생각이 있었다.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이처럼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날 그는 격려하는 세계정세속에서도 조선은 자기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 위하여 열중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 저작들을 많이 탐독하였다.

이 파격적 영성불멸의 주제사상이야말로 사람들을 광명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지도리념, 지도사상이라는것, 가장 완성된 혁명철학인 주제사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연하게 정립하여 인류에게 안겨 주신 김정일동지는 정녕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한순간에도 면 앞발을 내다보신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래 인류의 세기적업원은 활짝 꽃피날것이다.

그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21세기의 태양을 칭송하는 시작품을 여러편 창작 발표하였다.

그는 한 시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려지였다.

찬란한 그 태양의 빛발이래 나의 청춘 다시 꽃피우고싶고 나의 한생 다시 살고싶어 그러는 내 삶의 희망 그이네 내 삶의 미래 하기에 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아름다운 심장의 노래 삼가 드리노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아름다운 심장의 노래 삼가 드리노라 ...

내 온종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21세기의 태양의 그 영상 오메도록 우러르리라

로씨야의 빛발이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음으로 하여 지구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다.

본사기자 김 중 손

##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귀향권리보장을 주장

레바논대통령 미셸 후세이니가 1월 29일 연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귀향 권리를 보장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동지역에서 공경하고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책동을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구드스에서 유대인 살림집들을 계속 건설하는 한편 팔레스티나인살림집들을

## 서방의 기만적인 행위에 항의

알제리무역상 알 하세미 자아브라가 3일 연외교석상에서 서방의 기만적인 행위에 항의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몇년전까지 나라와 맺은 《공민자관계협정》에서 알제리의 세계무역을 자유가임을 돕겠다고 약속하였서는 지금에 와서 돌기는커

## 선군정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층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민주공화국 전진한 루뭌바주의에 국당 전국위원회에서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민주공화국 전진한 루뭌바주의에 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오메메 가스통 음보오는 강연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세기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파멸, 김일성주석의 서거와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의 연합세력의 괴멸화되는 압력책동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대독하시게 하시니 《조선의 행군》을 승리로 령도하시므로 조선은 강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를 경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주체적 사회주의생애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역학 천연 가스 공급시설 조업

도미니카에서 1일 첫 역학 천연가스공급시설이 조업하였다. 수도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이 시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하는 하나의 건설되었다 한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에 40개이상의 건설사업이 가스공급시설들을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 영양실조방치

리양실조방치 최근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한 2015년까지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문

제는 해결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한다.

고무나무재배

만남에서 고무나무재배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2015년까지 문주에서 고무나무재배 면적을 6만 7 600ha 늘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3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이 제시한 구호 《당장건 65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공공업과 농업에 박자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가 조선인민에게 보다 행복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이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공공사설은 인민들의 호응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를 늘리고, 공업의 운을 내게 하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조선인민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고 있는 지난 10년간에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령이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었던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인민반공투쟁 30돐이 되는 올해에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진적 지지와 편대성을 보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1월 11일과 12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중앙TV방송은 조선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하여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게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해 견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과정은 당사자들이 신뢰가 없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조미사이에서 신뢰를 조성하자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는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체도 곧 열리게 될수 있을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해방군보》, 《베이징보》, 《해방일보》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미국의 CNN방송은 조선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제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무성 성명은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가질수 없다고 비핵화는 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과 평화라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어떠한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고 성명은 밝혔다.

본사기자

## 보도

신문들인 《년전》, 《연도이년전》, 《하노이 머이》, 《월남뉴스》, 인디아의 PTI통신, 인디아-아사아통신,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태이즈맨》, 《에이선 에이커》, 이란신문들인 《이란 뉴스》, 《테헤란 타임스》, 《카이한 인리나슈넨》, 《이란 데일리》, 타이신문 《방크로 포스트》,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프 타임스》와 TV방송, 이탈리아의 안사통신, 체코의 체페타통신과 신문 《호스모다르스케 노비니》, 영국의 BBC방송, 체코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선조와 백두산세도조선선전협회의 인터넷포럼통용페지 《조선-백두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호소》, 《조선 민주적 평화협정체결을 제의》 등의 제목으로 외무성 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려는 강경한 입장

구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려는 구바인민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얼마전 구바공로사회지위 위원회 리아우 구바르토라시가 구바인민민주전선회의 정기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인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대력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미국의 반구미고립책동은 완전히 파탄되고있다. 지난해 외국의 41개국의 국가 및 8명의 외부사상과 78명의 외부사상들이 수도 아나나를 방문한것은 우리의 정당한 유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 주었고있다. 명백한것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구바혁명을 파괴하고나서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미국이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자력으로 호상존중의 대화를 통하여 미국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구바인민의 립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언명하였다.

구바는 미국의 엄청난 침략 위협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말 구바에서는 《보루 2009년 전략행동》과 《국방의 날》을 계기로 민병총련이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었다.

적들의 공습과 침입을 가산하여 해결할수 있는 현존에는 모든 군중, 병종의 군부대들과 특수부대, 내무인들을 그리고 방위력사회의군들 등이 참가하였다. 훈련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의 특징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을 소멸하고 대대적으로 있을수 있는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제압하며 주민대력, 식량, 먹는물보장, 전략물자보장, 부상자후송 등 전선의 모든 환경을 가산하여 립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라울 카스트로동지는 이번 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치구분은 1개월간으로 복잡해질수

준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금융위기의 후파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1월 22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를 발표하여 지난해 12월에 실업자가 그 전 달에 비해 13%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올해 1월에 실업자가 432만 6 500 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3.1% 더 증대되었기라고 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있지만 국방준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것, 따라서 외부환경이 어떠한 관계없이 국방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바에서는 해외교포동지들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도 강화되고있다.

지난 1월 말 구바의무상은 《구바해외교포들의 봉쇄반대, 민족적자주권옹호모임》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구바의 해외교포들을 구바를 침략하고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죄책감을 만들려는데 대하여 화를 내고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구바의 해외교포들에 대한 봉쇄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을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61개 나라에 있는 106개의 구바해외교포조직들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봉쇄를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려는 구바인민의 강경한 립장은 얼마전 구바의 민족적투쟁을 호세 마르티의 생일 157돐에 즈음하여 구바인민

들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봉쇄를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려는 구바인민의 강경한 립장은 얼마전 구바의 민족적투쟁을 호세 마르티의 생일 157돐에 즈음하여 구바인민

들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봉쇄를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려는 구바인민의 강경한 립장은 얼마전 구바의 민족적투쟁을 호세 마르티의 생일 157돐에 즈음하여 구바인민

들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봉쇄를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려는 구바인민의 강경한 립장은 얼마전 구바의 민족적투쟁을 호세 마르티의 생일 157돐에 즈음하여 구바인민

들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라마》에 게재된 기념글을 통해서도 천명되었다.

신문은 글에서 구바혁명들의 창건자인 호세 마르티가 혁명투쟁을 조직명도하기 위한 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놓은 견해가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명도하는 구바공산당에 고무적 힘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미제국주의가 아메리카인민들의 미래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고 그가 예언한데 대하여서와 그의 사상사론적 및 독립투쟁정적에 대하여 언명하였다.

한편 이날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회합시위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반구미봉쇄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운동도 활발해지고있다.

얼마전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제 19차 이베로-아메리카인민들의 회의